‘이해’와 ‘소통’의 정신으로 하나 되자

기획 ‘종교간 대화협력 운동’의 역사
- 종지협·KCRP 활동 중심으로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종교 화합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이제 낯선 광경이 아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이웃종교 화합주간’ 행사가 열려 사찰, 성지 등에 머무르는 이웃종교 스테이, 종교인 화합대회 등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성대하게 치러졌다. 비록 타 종교를 폄훼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종단 대표들을 주축으로 한 세대와 계층, 종교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다.

종교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류의 장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20년사>에 따르면 대화와 교류협력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교간 대화운동의 효시는 1965년 10월18일 용당산 호텔에서 ‘한국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가진 모임이다. 이보다 훨씬 앞선 1919년 종교지도자 33명이 힘을 합쳐 3·1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건 또한 종교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비록 지속적인 연대의 틀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신앙의 차이를 넘어선 첫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대화협력기구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스님)’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이다. 이들 두 단체는 종교간 협력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종지협은 도덕성 상실, 계층·종교간 갈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자 1997년 창립했다. 창립 때부터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위해 공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해왔다. 매년 이웃종교의 역사·문화의 이해를 위해 해외 성지도 함께 순례한다. 종지협보다 10여년 앞선 1986년에 창립한 KCRP는 서울에서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를 개최하면서 출범했다. KCRP는 종교지도자 세미나 및 이웃종교 이해강좌 등의 사업을 비롯해 재난 지역 평화봉사 등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진흥 KCRP 사무총장은 “종교간 대화운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엮어져 점차 영역을 넓혀나갔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공동입장을 천명하며 원만한 해결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대화운동 효시는
1965년 용단산호텔 모임

이웃종교 성지순례
종교문화 축제·강좌 등
다양한 사업 벌여

사회현안 공동입장 천명
원만한 해결 호소도

지난 10월20일 과천관문체육공원에서 열린 종교인화합대회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종교인들은 남북 화해를 위한 활동에도 전념해왔다. 대표적 사례는 1995년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북지원에 나선 것이다. 당시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역량을 모아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2008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4대 종단 대표들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들의 성명’을 채택,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종지협 운영위원장 법광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다종교 사회에서 이웃종교간 화합이 가능한 것은 종단 대표들이 꾸준히 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계층, 종교 갈등 해소에 앞으로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한국불교 밝은 미래 위해 정진해 달라”

진흥원, 기금 1억원 군종특별교구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젊은 불교 활성화’를 위한 군포교 지원금 1억 원을 지난 13일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스님)에 전달했다. 진흥원 김규칠 이사장은 이날 군포교를 위해 격지 및 오지부대 포교와 장병 수계법회 및 군승 연수·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포교지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군승들과 불자 장병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군불교가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해 달라”고 격려 메시지도 전했다.

진흥원의 지원금 전달은 별도의 전달식 없이 군종교구에 지원됐으며, 지원금은 5년 전부터 1억원으로 증액돼 매년 군종교구에 지원되고 있다.

김종찬 기자 kimjc00@ibulgyo.com

“어려울수록 이웃에게 따뜻한 자비를”

아름다운 동행 12월5일 자비나눔 후원의 밤 책가방 보내기 캠페인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오는 12월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오후6시부터 8시 20분까지 ‘제1회 자비나눔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교를 넘어 범국민 모금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각계에서 활약하는 불자 인사들의 친목모임인 ‘불교포럼’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아름다운동행 활동 동영상 시청, 나눔&동행 콘서트,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가수 최백호 씨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코리아합창단’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인기가수 장윤정 씨와 윙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소외 이웃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할 계획이다. 현재 유명 체육인 두 명을 추가로 섭외중이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올 겨울에도 선재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후원자들이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카드에 적고 선물을 담아 전국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배달하는 사업이다. 4회째를 맞아 더욱 알찬 선물을 하기 위해 책가방과 도서, 학용품 등을 후원한다. 내년 1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모금활동을 펼친다. 문의는 아름다운동행으로 하면 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학교에 입학 할 때부터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다”며 “첫 발을 내딛는 순간만큼은 설렘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 28일 환경세미나 개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실천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행사가 열린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오는 28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환경 토크(talk)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환경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지구온난화, 지속가능한 대안적 삶을 꿈꾸다’를,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가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인으로 살기’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활 실천 대규모 캠페인 등 다각적인 사업을 준비중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국제구호단체 위드아시아가 창립 10돌을 맞아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가슴 열면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 보입니다”

위드아시아 창립10주년 ‘1% 나눔 운동 협약식’

“불교의 출발은 인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가슴을 열고 눈을 크게 뜨면 지구촌 소외 이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친구입니다.”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국제구호단체 위드아시아 창립 10돌 기념행사에서 이사장 지원스님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이날 “10년 동안 해 온 것을 기반으로 그침 없이 구석구석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통일을 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빈곤계층 지원, 대북인도사업 등 다각적인 봉사와 구호활동을 국내외에서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날 각 정당 대선후보들도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주호영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불교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위드아시아의 숭고한 봉사이념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전순옥 의원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단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여준 합천평화의집 원장은 인사말에서 “위드아시아라는 단체를 만들어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해 온 스님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합천평화의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기념행사는 동영상 시청, 후원자 감사장 전달, 1% 나눔 운동 협약식,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원폭피해 2,3세들의 유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잔인한 내림’ 상영회를 가졌다.

홍다영 기자

社告

2013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3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모기간 : 2012년 11월 12일(월)~12월 12일(수)까지
- 응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 단편소설 부문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시조 부문 (각 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동화 부문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상 금 : 단편소설 600만원, 동화 400만원, 시·시조 40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 당선작발표 : 2013년 1월1일 신년특집호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 문 의 :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불교의 명상 - 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Buddhist Meditation from Ancient India to modern Asia)

성철 큰스님께서는 『백일법문』에서 불교의 명상을 금강산 산행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경전과 논서를 읽는 것은 금강산에 대한 여행 안내서를 읽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수만 권의 여행안내서를 읽는 것보다 직접 금강산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듯이, 경전과 논서를 읽기 보다는 끊임없이 참선하라는 것이 성철 큰스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성철 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불교의 명상 – 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Buddhist Meditation from Ancient India to modern Asia)’**를 주제로 열립니다. 고대 인도부터 현대 한국의 명상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11월 29일(木) ~ 30일(金)　✻ 장소: 동국대 덕암세미나홀

■ 학회 일정 ■

11월 29일(목요일)
09:00 학술포럼 입재식

기조발표
10:20 피터 스킬링 : 불교의 명상 누가 독점하려 하는가?
11:00 로버트 버스웰 : 한국불교 명상수행

제1부 고대 인도
13:00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 초기불교명상
13:40 알렉스 위니 : 브라만 사상과 초기불교의 명상
14:20 정덕 스님 : 디비아바다나에 나타난 인도불교의 명상

제2부 동남아시아
15:20 케이트 크로스비 : 동남아시아 불교와 명상
16:00 아티드 세라바닉쿨 : 탁신왕은 미쳤는가 위대한 보살인가 – 탁신왕의 전설에 나타난 명상의 중요성

11월 30일(금요일)

제3부 동아시아 및 티벳
10:00 제레온 코프 : 황소와 어떻게 해야 할까? 황소를 인도하는 수행에 관한 주석
10:40 혜원 스님 : 중국불교의 명상수행
11:20 아힘 바이어 :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티벳불교 명상전통에 나타난 돈오적 요소

제4부 한국
13:20 찰스 뮐러 : 사견과 명상을 통한 사견의 중단 – 원각경(圓覺經)을 통해 본 돈오의 힘
14:00 윤원철 : 한국불교명상과 돈오돈수
14:40 미산 스님 : 한국불교의 선문화
15:40 서명원 : 성철 스님의 명상
16:20 종합토의 및 총평

문의 _ 02)2198-5100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